

아동의 성별 및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윤 상 희¹⁾

임 정 하²⁾

정 순 화³⁾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동의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 366명이며,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독립표본 t 검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중 과민반응은 남아의 어머니들이 여아의 어머니들보다 더 높았으며, 공격성은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높았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공격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아동 대상의 상담 현장뿐 아니라, 부모 대상의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격성, 아동,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jhlim@korea.ac.kr)

3)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I. 서론

최근 아동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폭력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의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중·고등학교 시기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201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욕설 사용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80%가 초등학교 시기에 욕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여(양명희, 강희숙, 2010), 이 시기에 공격성 및 문제행동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일상화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용은 폭력적인 영상이나 게임, 채팅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듯 아동이 공격성에 노출되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접근이 쉬워지다 보니 아동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할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 형태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공격성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대상 즉,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상해, 파괴, 제거 혹은 제어를 가하는 것(Lazarus, 1976)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자신 또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 즉,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까지를 포괄하는 개념(Aronson, 1980)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격성은 영아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기 이후에는 점점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며(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epy, 1989), 이때 고착된 공격성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된다(홍경자, 노안녕, 1983;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또한 공격성은 공격 대상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여 우울증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박성연, 강지훈, 2005; 박우람, 홍상황, 2015; 서미정, 2011; 하영희, 2004; Farrell et al., 2005; Owens, Slee, & Shute, 2000).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식 습득 및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시기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학업의 양과 성적에 대한 부담, 이성에 관한 관심증가, 2차 성징의 발현으로 신체 및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적,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여 신체 및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분노나 충동적 표현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과격하게 표출하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Blitstein, Murray, Lytle, Birnbaum, & Perry, 2005; Wenar & Kerig, 2006). Wenar와 Kerig(2006)에 의하면, 아동기 초기에는 단순히 고집 센 행동과 같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는 덜 심각한 행동을 보이지만 아동기 후기가 될수록 무단결석, 신체적 싸움, 학대, 기물 파괴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아동기의 공격적 행동은 청소년기의 잦은 범죄적 위법행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아동기의 공격성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Nagin과

Tremblay(199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에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차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 중기 이후에 공격성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이은아, 천성문, 2013),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연구는 이후의 공격성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성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영유아거나 공격성의 표현정도가 심각한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주로 학대경험이나 맞벌이, 이혼, 다문화가정 등 가족형태,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기질을 들 수 있다(김연, 2010;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이주리, 2010; 한윤영, 2010).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생물학적인 요소로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특성을 말한다(Caspi, 1998; Plomin, DeFries, Craig, & McGuffin, 2003). Lambert(1988)의 연구에 의하면 기질은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공격성을 본능적 행동으로 간주하여 타고난 기질이 공격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Tieger, 1980).

기질의 차원 가운데, 정서성은 쉽게 부정적

기분을 느끼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기질적으로 분노나 좌절에 취약한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진 아동은 위협 혹은 도발적인 상황에서 분노하고 보복하려는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이주리, 2010; Rothbart & Bates, 2006; Vitaro, Brendgen, & Tremblay, 2002). 반면, 활동성은 일상생활에서 활력적이며 민첩한 특성을 의미하는데, 활동수준이 높은 아동은 긍정적 정서를 높게 지각하고 부정적 정서를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지윤, 임정하, 2011). 또한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Okun, Stock, Haring, & Witter, 1984),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공격성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 중 주요하게 보고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의 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등과 같은 부모관련 변인이다(박현정, 2014; 이하연, 박주희, 2014; Murray, Dwyer, Rubin, Knighton-Wisor, & Booth-LaForce, 2014). 특히 부모관련 변인 중에서 어머니의 정서 수용태도나 심리통제,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관련 특성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유신복, 손원숙, 2014; 전미숙, 손은정, 2013; 전숙영, 2015; Kaczynski, Lindahl, Malik, & Laurenceau, 2006). 어머니와 자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빈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사회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Denham, 1998). 실제로 어머니의 자녀 감정 수용 및 지

도는 자녀의 분노정서조절과 의도적 통제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공격성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수용해 줄수록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대처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남은영, 2011; 민성혜, 2009; 윤보람, 2010; Garner, Dunsmore, & Southam-Gerrow, 2008; Shortt et al., 2010; Valiente et al., 2007). 즉,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면, 자녀는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가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어 문제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Garner, Jones, & Miner, 1994). 반면, 어머니가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축소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했으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거나(김지연, 남은영, 2011;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이고 쉽게 분노하였으며(이하연, 박주희, 2014; Nelson et al., 2013), 또래관계에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rson & Parke, 1996). 이처럼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행동이나 사회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며,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도 단순히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며, 자녀가 어머니에게 부정적 정서표현을 보였을 때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회피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처벌과 같은 반응을 하기 쉽다. 이는 자녀의 분노표출을 자극하거나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가지게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질적 요소인 부정적 정서성뿐 아니라 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도 자녀의 정서적 반응이나 표현행동, 나아가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동 행동발달 분야에서 성별과 같은 유전적 요인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폭력이나 분노 등 위험요인에 반응하는 행동문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연, 2010; 서미정, 2011; 오인수, 2014; 최재정, 2011; Owens, Slee, & Shute, 2000)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적인 외현화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 적대감이나 분노를 표출한다고 주장했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한기승, 2016; Frodi, Macaulay, & Thome, 1977). 그러나 일부 연구(최선이, 2002)

에서는 공격성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기질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순혜, 2003; 박지숙 등, 2009)에서 활동성 차원은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성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김경희, 2004)도 있었다. 쉽게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정서성 차원은 여아 집단이 남아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문지윤, 임정하, 2011; Buss & Plomin, 1986). 반면 또 다른 연구(김연숙, 2005)에서는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모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에 따른 기질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오지현, 2014; 임정하, 강현지, 박선훈, 윤상희, 최정원, 2016)에서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보다 과민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코칭반응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Eisenberg & Fabes, 1994)에서는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보다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더 수용적이고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공격성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각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격성과 기질

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데 반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는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가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보다 과민반응을 보이고 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공격성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단순히 기질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 변인과 기질을 통제하고도 어머니의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기질은 여러 유형의 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Lytton, 1990). 대부분의 연구(이주리, 2010; Vitaro, Barker, Boivin, Brendgen, & Tremblay, 2006)에서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전반적 양육태도 모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사회화의 측면에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상급학교에 대한 부담감,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며, 발달단계상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심리적 격동기’, ‘질풍노도기’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충동과 공격성이 나타난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시기상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때 가장 빈번하게 정서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반응은 아동의 표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고유한 특성

인 기질과 환경적 특성인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타고난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후천적인 요인이 공격성을 줄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성별과 기질을 통제한 후,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아동상담 및 지도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직한 정서사회화교육을 제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공격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생 3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에 소재한 초등학교 6곳에 재학 중인 5~6학년 39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395부(99.2%)였다. 이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366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남아가 175명, 여아가 191명이었다. 연구대상 중 5학년이 168명, 6학년이 198명이었다. 아동의 출생 순위는 첫째(42.6%)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은 40세 이상 50세 미만(부: 82.0%, 모: 80.1%)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57.4%, 모: 58.5%)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 관리직(38.5%)이, 어머니는 가정주부(37.4%)가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기질 척도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세영(1996)이 번안하고 수정한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기질 척도를 문지윤과 임정하(2011)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성 5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9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은 쉽게 부정적 기분을 느끼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활동성은 활력적이고 민첩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사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이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정서성 .70, 활동성 .71, 사회성 .86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척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오지현(2013)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코칭 10문항, 과민반응 5문항, 감정축소 6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코칭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수용해주고 이해하며, 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반응을 말한다. 과민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인정하기는 하지만 불안해하며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말하며, 감정축소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못마땅해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반응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형식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감정코칭반응 .91, 감정축소반응 .75, 과

민반응 .74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아와 천성문(2013)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행동적 공격성 16문항, 적대감 8문항, 분노감 6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적 공격성은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 행동을 의미하며, 적대감은 인지적 요인으로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분노감은 정서적 요인으로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형식으로 초등학생이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전체 문항의 경우 .94, 행동적 공격성 요인 .91, 적대감 요인 .90, 분노감 요인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7년 6월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5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문항 이해정도나 응답방식의 어려움 등을 검토하고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그런 후 2017년 7~8월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5~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초등학

교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설문방법 및 주의사항, 예상 소요시간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때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연구목적에 대한 정보와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과 협조 교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질문지 응답이 완료된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이용하여 395부(99.2%)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9부는 제외하였고 36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기질을 통제한 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성별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기질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3단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기에 앞서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고, 변인 간 상관계수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에는 IBM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공격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질의 경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과민 반응은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집단($M = 2.74$, $SD = 0.71$)이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집단($M = 2.37$, $SD = 0.77$)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 = 4.91$, $p < .001$). 즉,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코칭반응이나 감정축소반응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끝으로, 공격성은 남아 집단의 평균($M = 2.04$,

표 1. 아동의 기질,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의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표본 t 검증 ($N = 366$)

		남아 ($n = 175$)	여아 ($n = 191$)	t
		$M (SD)$	$M (SD)$	
기질	정서성	2.70(.75)	2.67(.74)	.40
	활동성	3.62(.78)	3.47(.79)	1.87
	사회성	3.72(.72)	3.64(.81)	1.04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감정코칭반응	3.59(.84)	3.45(.87)	1.51
	감정축소반응	2.22(.71)	2.23(.75)	-.05
	과민반응	2.74(.71)	2.37(.77)	4.91***
공격성	행동적 공격성	1.92(.62)	1.65(.53)	4.63***
	적대감	1.94(.84)	1.77(.76)	2.13*
	분노감	2.48(.86)	2.60(.92)	-.13
	전체	2.04(.63)	1.87(.55)	2.79**

* $p < .05$. ** $p < .01$. *** $p < .001$.

SD = 0.63)이 여아 집단의 평균($M = 1.87$, $SD = 0.55$)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 = 2.79$, $p < .01$).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행동적 공격성($t = 4.63$, $p < .001$)과 적대감($t = 2.13$, $p < .05$)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측면인 분노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남녀 표본을 분리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공격성은 남아와 여아 집단 모두 기질의 정서성 차원(남: $r = .56$, $p < .001$; 여: $r = .54$, $p < .001$)과는 유

의한 정적 상관을, 활동성 차원(남: $r = -.33$, $p < .001$; 여: $r = -.27$,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성 차원은 남아 집단의 경우,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r = -.37$, $p < .001$),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공격성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남녀 집단 모두 정서성 차원은 공격성의 정서적 측면인 적대감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남: $r = .50$, $p < .001$; 여: $r = .48$, $p < .001$), 활동성 차원(남: $r = -.33$, $p < .001$; 여: $r = -.27$, $p < .001$)과 사회성 차원(남: $r = -.36$, $p < .001$; 여: $r = -.25$, $p < .001$)은 적대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성 차원에서 남아 집단과 여아 집단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 집단의 경우, 적대감($r = -.36$, $p < .001$), 행동적 공격성($r = -.32$, $p < .001$), 분노감($r = -.29$, p

표 2. 아동의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공격성 간의 관계 ($N = 366$)

		1	2	3	4	5	6	7	8	9	10
기질	1. 정서성	-	-.22**	-.26**	-.04	.31***	.12	.47***	.50***	.49***	.56***
	2. 활동성	-.27***	-	.64***	.36***	-.02	-.24**	-.27***	-.33***	-.25**	-.33***
	3. 사회성	-.24**	.66***	-	.30***	-.08	-.17*	-.32***	-.36***	-.29***	-.37***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	4. 감정코칭반응	-.30***	.30***	.25**	-	-.01	-.58***	-.35***	-.34***	-.33***	-.40***
	5. 과민반응	.18*	.06	.06	.18*	-	.22**	.17**	.23**	.20**	.23**
	6. 감정축소반응	.33***	-.25**	-.21**	-.62***	.19**	-	.32***	.34***	.33***	.38***
공격성	7. 행동적공격성	.42***	-.19**	-.02	-.24**	.14	.27***	-	.53***	.65***	.90***
	8. 적대감	.48***	-.27***	-.25***	-.38***	.10	.39***	.51***	-	.62***	.81***
	9. 분노감	.48***	-.24**	-.10	-.35***	.09	.37***	.58***	.49***	-	.84***
	10. 전체	.54***	-.27***	-.14	-.38***	.13**	.40***	.88***	.79***	.80***	-

주. 우상단: 남아표본($n = 175$), 좌하단: 여아표본($n = 191$)

* $p < .05$. ** $p < .01$. *** $p < .001$.

< .001)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적대감($r = -.25$, $p < .001$)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행동적 공격성과 분노감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공격성은 남아와 여아 집단 모두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은 감정코칭반응(남: $r = -.40$, $p < .001$; 여: $r = -.38$,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감정축소반응(남: $r = .38$, $p < .001$; 여: $r = .40$, $p < .001$), 과민반응(남: $r = .23$, $p < .01$; 여: $r = .13$, $p < .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은 남아 집단의 경우, 행동적 공격성($r = -.35$, $p < .001$)과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적대감($r = -.38$, $p < .001$)과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을

을 보였다. 어머니의 감정축소반응은 남녀 집단 모두 적대감(남: $r = .34$, $p < .001$, 여: $r = .39$, $p < .001$)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과민반응에서는 남아 집단과 여아 집단의 상관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 집단의 경우, 적대감($r = .23$, $p < .01$), 분노감($r = .20$, $p < .01$), 행동적 공격성($r = .17$, $p < .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행동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3.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성별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기질의 세 가지 차원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3단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7.76, p < .01$). 모형 2의 경우도 설명력이 35%로 아동의 성별과 기질이 공격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7.95, p < .001$). 모형 3의 경우도 설명력이 4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밝혀졌다($F = 38.30, p < .001$). 구체적으로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정서성 차원($\beta = .44, p < .001$)이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beta = -.21, p < .001$), 성별($\beta = -.14, p < .01$), 감정축소반응($\beta = .13, p < .05$)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아동이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축소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행동적 공격성의 경우, 모형 1의 설명력은 6%($F = 21.73, p < .001$), 모형 2의 설명력은 26%($F = 31.18, p < .001$)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성별과 기질이 아동의 행동적 공격성

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30%였으며($F = 22.09, p < .001$), 정서성($\beta = .36, p < .001$), 성별($\beta = -.23, p < .01$), 감정코칭반응($\beta = -.17, p < .01$), 감정축소반응($\beta = .08, p < .05$)의 순으로 행동적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즉, 아동이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감정축소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행동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적대감의 경우, 모형 1의 설명력은 1%($F = 4.54, p < .05$), 모형 2의 설명력은 29%($F = 37.00, p < .001$)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성별과 기질이 아동의 적대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36%였으며($F = 28.72, p < .001$), 정서성($\beta = .38, p < .001$), 감정코칭반응($\beta = -.18, p < .01$), 감정축소반응($\beta = .13, p < .05$), 성별($\beta = -.11, p < .05$)의 순으로 아동의 적대감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즉, 아동이 기질적으로 정서성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감정축소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아동의 적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분노감의 경우, 모형 1은 아동의 분노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모형 2의 설명력은 25%($F = 30.18, p < .001$)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32%였으며($F = 24.18, p < .001$), 정서성($\beta = .39, p < .001$),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beta = -.18, p < .01$), 감정축소반응($\beta = .14, p < .05$)의 순으로 아동의 분노감을

표 3. 아동의 공격성 전체 및 하위요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366$)

변인		행동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		전체	
		<i>B</i>	β	<i>B</i>	β	<i>B</i>	β	<i>B</i>	β
모형1	성별	-.28	-.24***	-.18	-.11*	.13	.07	-.17	-.14**
	<i>R</i> ²	.06		.01		.01		.02	
	<i>F</i>	21.73***		4.54*		1.79		7.76**	
모형2	성별	-.28	-.24***	-.19	-.12*	.12	.07	-.18	-.15***
	정서성	.32	.40***	.47	.43***	.54	.45***	.40	.50***
	활동성	-.11	-.15*	-.11	-.11	-.16	-.14	-.12	-.16**
	사회성	.03	.03	-.12	-.12*	.02	.02	-.02	-.02
	<i>R</i> ²	.26		.29		.25		.35	
	ΔR ²	.20***		.28***		.25***		.33***	
	<i>F</i>	31.18***		37.00***		30.18***		47.95***	
모형3	성별	-.28	-.23**	-.18	-.11*	.12	.07	-.17	-.14**
	정서성	.28	.36***	.41	.38***	.48	.39***	.36	.44***
	활동성	-.07	-.10	-.05	-.05	-.09	-.08	-.07	-.09
	사회성	.04	.05	-.11	-.10	.05	.04	.00	.00
	감정코칭반응	-.11	-.17**	-.17	-.18**	-.19	-.18**	-.14	-.21***
	감정축소반응	.06	.08*	.14	.13*	.17	.14*	.10	.13*
	과민반응	.04	.07	.07	.06	.04	.04	.05	.07
<i>R</i> ²		.30		.36		.32		.43	
ΔR ²		.04***		.07***		.07***		.08***	
<i>F</i>		22.09***		28.72***		24.18***		38.30***	

주. 성별을 가변수화하여 투입함(남 = 0, 여 = 1)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기질적으로 정서성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감정축소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분노감이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

머니 반응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아동의 성별, 기질 및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공격성의 일부 하위요인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질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 남아를 둔 어머니 집단이 여아를 둔 어머니 집단보다 과민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를 둔 어머니들이 여아를 둔 어머니들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과민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강현지, 임정하, 2015;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정서표현을 더욱 공격적이고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미정, 2011; 오지현, 조미영, 2015; Chaplin & Aldao, 2013) 정서표현을 강하고 거칠게 하는 남아를 둔 어머니들이 여아를 둔 어머니들보다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어머니의 과민반응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지각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수희, 박성연, 2009; 채진선, 2007)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와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 지나치게 불안해하며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반응을 유대감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과민반응으로 지각하지 않는 반면, 남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어머니의 반응도 과민반응으로 지각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과 감정축소반응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지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격성에서는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행동적 공격성과 적대감에서 남아 집단의 평균이 여아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는 남아들의 행동적 공격성이 여아들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장유진, 2007; 최재정, 2011; Nivette, Eisner, Malti, & Ribeaud, 2014)나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적대감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한세리, 2007)와 일치한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신체적이며, 직접적인 형태의 행동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친구관계나 일상생활에서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욕설이나 싸움 등과 같은 충동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DSM-5에서도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의 발병 빈도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기 이전의 적대적 반항장애는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다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이러한 결과의 일부 원인으로 생물학적인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Maccoby, 1998). 즉, 공격성은 남성에게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과 관련이 있어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정서표현 능력(심혜숙, 왕정희, 2001; 장미선, 문혁준, 2006), 사회적 능

력이나 공감능력(김미진, 김리진, 2011; 유연경, 유미숙, 2012; 조은주, 정윤경, 2014; Auyeung et al., 2009)을 보이는 것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정서적 능력이 제한된 아동은 자신의 목표가 차단되거나 다른 아동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즉, 정서적 능력이나 사회적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주장을 공격적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공격성 간의 관련성은 남녀 아동집단에서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부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기질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은 남녀 집단 모두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김연숙, 2005;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과 일치한다. 아동의 활동성은 남녀 집단에서 모두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활력적일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고, 부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난 연구(김경희, 2004; 문지윤, 임정하, 2011; Hills & Argyle, 2001)와 맥을 같이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민첩하고 활력적인 경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Okun et al., 1984) 공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성의 경우 남아집단에서는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여아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공격성의 관계는 남녀 아동 집단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남아 집단과 여아 집단 모두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성코칭반응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이고 공감적일수록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권연희, 이종희, 2005; 김연숙, 2005; Katz & Hunter, 2007)과 맥을 같이한다. 반면,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성축소반응과 과민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처벌적이고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Katz & Hunter, 2007; Shortt et al., 2010)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불안을 증가시켜 아동이 사회정서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게 한다는 Buck(1984)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반응을 많이 보일 경우,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이거나 못마땅해하고 가치 없는 반응을 보일 경우, 자녀는 부정

적인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과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이 연합하여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Gottman, Katz, & Hooven, 1997). 이 때 자녀는 본인의 정서를 숨기고 억제하도록 학습하여 욕구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정서반응이나 인지적 평가가 왜곡되고 부정적인 정서에 예민하게 되어 부적절한 행동 및 공격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성별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성별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고,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기질의 정서성 차원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질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후에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아 집단이 여아 집단보다, 아동이 쉽게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성향을 보일수록,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을 못마땅해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수록 아동은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 차원은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쉽게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성향일수록 아동이 공격성 및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김연숙, 2005; 김지윤 등, 2008; 이주리,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chenbach(1993)는 공격성 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특징적인 행동으로 질투, 과시, 고집, 짜증, 기분급변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을 열거하였다. 쉽게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에 쉽게 동요되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많은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아동은 외부 자극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 공격성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 후기는 발달단계상 사춘기로, 화, 불안,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때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Denham & Kochanoff, 2002)에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자녀와 어머니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사회성이 향상되었으며,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타고난 개인적 특성인 기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도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이를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감정코칭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공격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 및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자녀가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감정축소반응은 아동

의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Gottman, Katz와 Hooven(1997)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면 자녀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어 정서 유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불안이 높아지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이고 부적절한 표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Gottman et al., 1997).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은 아동의 공격성 및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못마땅해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감정축소반응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성별과 기질,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공격성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행동적 공격성 요인과 적대감 요인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은 아동의 정서성, 성별,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 감정축소반응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쉽게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성향이 높을수록,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을 못마땅해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수록 아동이 행동적 공격성과 적대감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감 요인에서는 아동의 정서성,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 감정축소반응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쉽게 부정

적인 기분을 느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못마땅해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수록 아동의 분노감이 높게 나타났다.

기질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 감정축소반응은 공통적으로 공격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행동적 공격성 및 적대감에는 영향을 미친 반면, 분노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을 의미하는 행동적 공격성이나 인지적 공격성을 의미하는 적대감 수준은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공격성을 위한 생리적 각성수준에는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외현화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내부에서 적대감이나 분노를 표출한다는 주장(유안진 등, 2002; 한기승, 2016)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기보고식 응답자료를 수집하였다. 단일보고자 방식이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다중보고자 방식, 즉 어머니와 아동 쌍 자료를 바탕으로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격성의 경우 자기보고식 자료뿐 아니라 관찰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다중자료가 수집된다면 보다 과학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아동의 기질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이 공격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성의 이러한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아동의 공격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현장이나 공격성 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에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살펴본 후 각 기질에 적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접목시킨다면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증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부모교육 현장에서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감성코칭반응을 보이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지, 임정하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3(3), 265-277.
- 교육부. (2017).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 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경희 (2004).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355-370.
- 김미진, 김리진 (2011). 어머니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공감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4(2), 1-15.
- 김수희, 박성연 (2009).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01-113.
- 김순혜 (2003).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4), 1-12.
- 김연 (2010). 유아의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8(1), 55-66.
- 김연숙 (2005). 아동의 기질과 부/모 애착, 문제행동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8.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문지윤, 임정하 (2011). 시설보호 아동의 기질 및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3), 79-86.
- 민성혜 (2009). 어머니 반응, 유아 내적 표상과 억제성향, 정서조절이 유아의 신체적·관계적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 구, 16(1), 21-40.
-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우람, 홍상환 (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친구관계의 질의 관계: 적대감,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2), 285-302.
-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박현정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공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 심혜숙, 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양명희, 강희숙 (2010).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오인수 (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 오지현 (2013).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과 타당화. *아동학회지*, 34(6), 97-122.
- 오지현 (2014).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 관계. *아동학회지*, 35(4), 61-78.
- 오지현, 조미영 (2015).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문제행동 간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225-249.
- 유신복,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정서조절 및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8(1), 205-224.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유연경, 유미숙 (20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25(1), 17-32.
- 윤보람 (2010).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천성문 (2013).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77-495.
- 이주리 (2010). 아동의 반응적,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부모양육태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17-125.
-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 임정하, 강현지, 박선희, 윤상희, 최정원 (2016).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1), 95-112.
- 장미선, 문혁준 (2006).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

- 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11-21.
- 장유진 (2007). 중학생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자기애 및 지배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숙, 손은정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2), 19-27.
- 전숙영 (2015).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공격성 - 학령 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1), 1-19.
- 조은주, 정윤경 (2014).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1(4), 129-147.
- 채진선 (2007).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이 (2002). 아동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정 (2011). 부모의 의사소통, 양육태도 및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기승 (2016). 아동의 ADHD성향과 분노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세리 (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윤영 (2010). 초등학교 남, 녀 아동의 기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4(1), 19-31.
- Achenbach, T. M. (1993). *Empirically based taxonomy: How to use syndromes and profile types derived from the CBCL/4-18, TRF, and YSR*. Burlington, VT: University Associates of Psychiatry.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박원명, 신민섭, 유범희, 윤진상, 이상익, 이승환, 이영식, 이현정, 임효덕(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13)
- Aronson, E. (1980). *The social animal*.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1521.
- Blitstein, J. L., Murray, D. M., Lytle, L. A.,

- Birnbaum, A. S., & Perry, C. L. (2005). Predictors of violent behavior in an early adolescent cohor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gender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2(2), 175-194.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pp. 209-242), New York: Guilford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ss, A. H., & Plomin, R. (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In R. Plomin & J. Dunn (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pp. 67-7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pe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 I.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320-330.
- Carson, J. L., & Parke, R. D. (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5), 2217-2226.
- Caspi, A. (1998).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311-38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haplin, T. M., & Aldao, A. (2013).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in children: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9(4), 735-765.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Denham, S. A.,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311-34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 F.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 179-204.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Garner, P. W., Dunsmore, J. C., & Southam-Gerrow, M. (2008).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emotions: Linkages to child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7*(2), 259-277.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 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2), 622-637.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ills, P., & Argyle, M. (2001). Emotional stability as a major dimension of happ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8), 1357-1364.
- Kaczynski, K. J., Lindahl, K. M., Malik, N. M., & Laurenceau, J.-P. (2006). Marital conflict,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test of mediation and moder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199-208.
- Katz, L. F., & Hunter, E. C. (2007).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Social Development, 16*(2), 343-360.
- Lambert, N. M. (1988). Adolescent outcomes for hyperactive children: Perspectives on general and specific patterns of childhood risk for adolescent educational, soci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erican Psychologist, 43*(10), 786-799.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 Lytton, H. (1990). Child effects-still unwelcome? Response to Dodge and Wahler. *Developmental Psychology, 26*(5), 705-709.
- Maccoby, E. E. (1998). *The two sexes: Growing up apart, coming together*.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Murray, K. W., Dwyer, K. M., Rubin, K. H., Knighton-Wisor, S., & Booth-LaForce, C. (2014).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ggression: Maternal and patern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8), 1361-1373.
- Nagin, D., & Tremblay, R. E. (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to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juvenile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70*(5), 1181-1196.
- Nelson, J. A., Leerkes, E. M., Perry, N. B., O'Brien, M., Calkins, S. D., & Marcovitch, S. (2013). European-American and African-American moth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relate differently to their children's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22*(3), 485-498.
- Nivette, A. E., Eisner, M., Malti, T., & Ribeaud, D. (201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mong children of low and high gender inequality backgrounds: A comparison of gender role and sexual selection theories. *Aggressive Behavior, 40*(5), 451-464.
- Okun, M. A., Stock, W. A., Haring, M. J., & Witter, R. A. (1984). The social activity/

- subjective well-being relation: A quantitative synthesis. *Research on Aging* 11, 45-65.
- Owens, L., Slee, P., & Shute, R. (2000). 'It hurts a hell of a lot...': The effects of indirect aggression on teenage gir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4), 359-376.
- Plomin, R., DeFries, J. C., Craig, I. W., & McGuffin, P. (2003). *Behavioral genetics in the postgenomic er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6th ed., pp. 99-166).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Tieger, T. (1980). On the biological basis of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1(4), 943-963.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2), 249-267.
- Vitaro, F., Barker, E. D., Boivin, M., Brendgen, M., & Tremblay, R. E. (2006). Do early difficult temperament and harsh parenting differentially predict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5), 681-691.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E. (2002).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95-505.
- Wenar, C., & Kerig, P. (2006).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5th ed.). Boston, MA: McGraw-Hill.

1 차원고접수 : 2018. 04. 02.

수정원고접수 : 2018. 11. 21.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The Effects of Gender,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s on Child Aggression

Yoon, Sang-Hee¹⁾

Lim, JungHa²⁾

Chung, SoonHwa²⁾

¹⁾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²⁾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ild aggression in relation to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s. A sample of 366 children in the 5th or 6th grade in six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Temperament,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were assessed by a child-report using a set of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ys reported a higher level of oversensitive-reaction of their mothers than girls. Second, boys showed greater physical aggression than girls. Third, there were bivariate associations among temperament,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s and child aggression. That is, greater aggression was related to higher negative emotionality, lower activity as well as sociability of the child. Also, greater aggression was linked to less emotion-coaching reaction, more oversensitive reaction and emotion-minimizing reaction of mothers. Fourth, child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gender,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reactions to the child negative emotions. Th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assessing negative emotionality of children and educating emotion coaching behaviors of mothers for reducing child aggression.

Keywords: aggression, child, gender, temperament, mother's reaction to negative emotions